C3 좌절하는 청춘, 청양대학 또 다른 돌파구!

충남도립청양대학신문

Media

CHUNGNAM PROVINCIAL CHEONGYANG COLLEGE NEWSPAPER

발행처 충남도립청양대학 신문사 **발행인** 총장 구본충 **사장** 박창원 교수 **편집장** 윤석진 **발행일** 2013년 9월 제37호 **디자인** 예당기획 TEL. 041-333-4405

충남도립청양대학이 만드는 신문

자치행정과, 소방안전관리과 공무원시험 합격률 전국 최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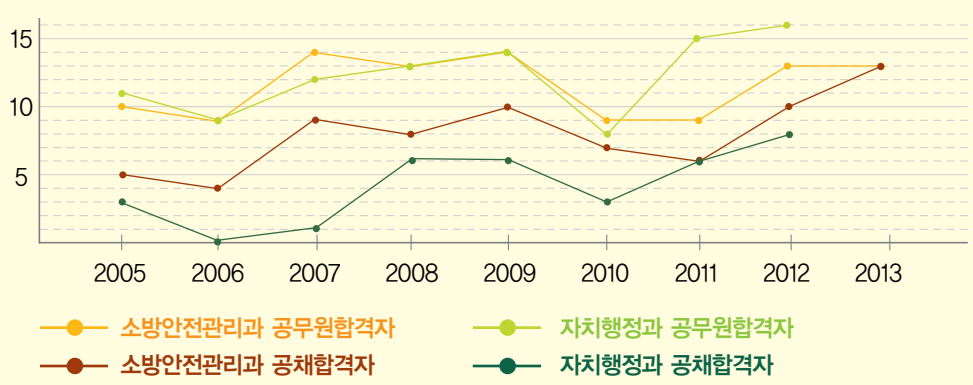
우리 대학의 자치행정과와 소방안전관리과의 공무원채용시험 합격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여 명실공히 공무원 특성화 학과임을 입증했다. 현재 우리 대학의 자치행정과와 소방안전관리과의 입학정원은 두 학과를 합하여 연 115명으로 비교적 적은 숫자임에도 작년 한 해 공무원채용시험에서 30명이 합격하여 공직 진출률이 정원 대비 25%에 이르는 높은 공직진출 학과로 자리잡았다. 특히 이번 년도 소방안전관리과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이 전반기에만 30% 증가하는 등 공무원채용시험 합격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미 재작년 대비 공무원채용시험 합격률이 각 50% 이상 상승(아래 표 참조)한 상황에서 합격률의 증가가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특채를 중심으로 한 진출 구조에서 공무원채용시험 중심으로 학과 체질이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학과의 질적 진화가 바람직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 **이혜영** 기자 (sktkfkd04@naver.com)

충남도립청양대학 공무원 진출자 현황

학 과 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방안전관리과	10(5)	9(4)	14(9)	13(8)	14(10)	9(7)	9(6)	13(10)	13(13)
자치행정과	11(3)	9	12(1)	13(6)	14(6)	8(3)	15(6)	16(8)	–

※ ( )는 공채자 인원 / 2013년 특채, 공채는 하반기 시행 예정 (2013년 7월 31일 현재, 단위:명)



특집보도 01

우리 대학의 사실상 이사장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특강 열려

대학시절이야말로 인생의 어떠한 시기와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시기

지난 6월 12일 재학생들에게 청양대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충남도립청양대학 해오름관 다목적 홀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는 재학생과 교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어려운 현실여건에 주눅 들지 말고 자신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안 지사는 "꿈과 우정, 감성이 풍부한 대학시절이야말로 인생의 어떤 시기와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 세대의 20대 청년들도 각 세대마다의 시대적 과제와 장애물을 극복해온 만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의가 끝난 후에는 학생들과 안희정 지사와의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이 이어지면서 특강을 청취한 학생들은 "지금 나의 어려움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 **박수진** 기자 (fly_jeonbuk@nate.com)

효자 등록금으로 학부형들 등짐을 덜어드려 우리 대학 학생 일인당 매년 800만원 되돌려 받는 셈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으로 약 13조원이나 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학생들의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인상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은 1년에 학생 한 명당 약 800만 원을 보조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우리 대학은 학생 등록금이 한 학기 약 100만원으로 두 학기를 합쳐도 약 2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다가 도비, 국비 및 민간장학금이 1인당 약 200만원(1학기 현재 13억 지원, 도표 참조), 교육역량강화사업 국가지원금 약 21억(학생 1인당 평균 200만원), 글로벌 인턴십 충청남도 지원 약 1억8천만원(2개과 선발 학생에 집중지원) 등이 학생들에게 매년 지원되고 있다. 이외에도 RIS 사업, 문화유산해설사 지원사업, 도서관 건립지원금, 학생회관 및 기숙사 추가건립 지원금에다 국가와 도 보조금까지 합하면 학생지원 액수는 100억원이 훨씬 넘어서게 된다. 이는 1100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이상이 지원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1년 두 학기 등록금이 약 2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충남도립 청양대학의 학생들에게 약 800만원을 유무형의 금액으로 돌려주는 셈으로 효자 등록금에도 알찬 학업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구본충 총장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위해서 외부 지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송득원** 기자 (emrdnjs011@naver.com)

2013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현황

구 분				지급내역 인 원	지급내역 금 액
총 계				2,170	1,290,707
도 비	교 내	소 계		1,007	323,318
		성적 장학금		120	89,918
		도민 장학금		373	103,942
		복지 장학금		454	122,588
		국가근로(대응)		58	4,720
		충남인재육성재단(해외연수)		2	2,150
국 비	교 외	소 계		1,095	891,885
		한국장학재단	1 유 형	697	671,423
			2 유 형	340	210,192
			국가근로	58	10,270
민 간	소 계			68	75,504
	지자체	의용소방대자녀		6	3,425
		청양군 애향장학회		7	7,000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33	49,500
	재 단	아산사회복지재단		1	429
		충남인재육성재단(해외연수)		2	6,450
	동문회	토지행정과 동문회		6	2,200
	기 탁	고 이상민 유가족 기탁장학금		13	6,500

INSIDE

C2
- 글로컬라이제이션 프로그램 정착
- 하반기 인사단행
- 2013년 경찰관 3명의 합격자 배출
- 교육역량강화사업 6년 연속 선정

C3
- 양승일 교수 논설
- 좌절하는 청춘, 청양대학 또 다른 돌파구
- 캠퍼스 흡연, 이제 그만!

C4 C5
- 작은공간 사장님과의 소중한 시간
- 제 15대 총학생회 '불꽃처럼'
- 통학버스 기사를 인터뷰하다!

C6
- June vision (준비展)
- 제14회 세계머드피부미용경진대회 및 머드&뷰티페스티벌'
- 2014년도 자치행정과 야간과정 사회복지사 자격증취득 가능

특집보도 02

대학의 글로컬라이제이션 프로그램 정착

우리 대학 학생들 외국 학위 받는다.

우리 대학의 글로컬라이제이션 프로그램이 점차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란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과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의 합성어로 학생들의 국제화와 국내 취업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우선 지방화 정책의 프로젝트 성과는 전국 최고의 공무원 공채 합격률과 상승률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 또한 학교를 대표하는 대표 브랜드학과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전기전자과와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를 비롯 컴퓨터정보과와 환경보건과를 새롭게 변모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 학과들은 앞으로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탑 브랜드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국제화 정책은 지방 학생들에게 태평양을 넘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하겠다는 꿈의 프로젝트이다. 호텔관광외식과와 뷰티코디네이션과,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를 중심으로 우리 대학은 캐나다 밴쿠버 소재의 Sprott-Shaw College의 복수학위제가 성공리에 추진되어 외국 학위를 받는 제도가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 게다가 학생 간부들의 해외봉사 프로그램 제도를 통한 인성교육과 해외 적응 연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다.지난 6월 5일 캐나다 벤쿠버로 학생 6명이 출국했으며 9개월의 SSC 대학에서의 학업과 1년간의 현지 업체 인턴생활을 통해 외국 취업에 적응할 예정이다. 타 대학이 거의 자비로 외국 교환학생으로 나가는데 비해 우리 대학은 자비 부담률이 매우 적은 것이 장점이다.

구본충 총장은 "어학은 물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해 더 많은 해외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1달간 무료로 다녀오는 필리핀 연수 역시 실속 있게 진행되어 25명의 학생이 영어 연수를 통해 세계화 적응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거뒀다. 이는 우리 대학과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성취한 성공 합작품으로 학생들은 필리핀에서 한 달간 생활하면서 필리핀의 문화와 언어를 배웠다. 태평양을 넘는 해외 프로젝트가 점 점 다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김미애 팀장은 말했다.

❖ **이혜영** 기자 (sktkfkd04@naver.com)

특집보도 03

우리 대학 경찰행정과 경찰관 합격자 다수 배출

경찰행정학과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경찰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올해 그 성공신화의 주역들은 박종민(24), 김초이(여 · 22), 전용철(23) 등으로 이들은 2013년 1차 경찰시험을 통과하고 필기시험과 신체 · 체력 · 적성검사, 그리고 면접 관문이라는 힘든 경찰고시의 여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이번 경찰행정학과의 경찰관 배출은 2011년에 경찰공무원 3명을 배출한 이후 가장 많은 경찰관을 배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경찰행정학과는 2007년 설치이후 자체 설립한 학과교육지원센터(Education Service Center)를 통해 경찰공무원 진출을 위한 특수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개인별 맞춤형 특강,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지원, 고시실 운영, 고시학원과의 연계 등 창의적 교육으로 운영해 왔다.

우리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는 전국 도립대학 중 유일한 것으로 충남도민의 안녕과 보호를 위해 수호천사들을 키워나간다는 믿음과 열정이 강하다.

한편 합격자들은 6월 29일 중앙경찰학교에 입교, 8개월(34주)간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수료 후 서울지방경찰청(전용철), 충남지방경찰청(박종민, 김초이)으로 입직하게 된다.

❖ **송득원** 기자 (emrdnjs011@naver.com)

하반기 인사단행

윤석환 학생지원처장
이승일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임명

윤 석 환
학생지원처장

이 승 일
교수학습지원센터장

학교 당국은 자치행정과 윤석환 교수를 학생지원처장으로,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이승일 교수를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 지난 7월 1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석환 교수(52세, 남)는 1999년 자치행정과 교수를 시작으로 같은 대학 학생복지과장, 자치행정과 학과장등을 역임했다.

이승일 교수(45세, 여)는 2008년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교수를 시작으로 같은 대학 디자인연구소장,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학과장(現)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충남도립청양대학 구본충 총장은 "이번 인사는 관련 업무 능력을 고려하여 임명 하였으며, 금번 인사를 통해 대학 운영에 있어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연미** 기자 (gmrqorwls77@naver.com)

특집보도 04

충남도립청양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6년 연속 선정

질 높은 교육지원서비스 가능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2013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돼 전국 7개 도립대학 중 최고 금액인 21억 8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139개 전문대학 중 교육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일부 전문대학을 선정,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올해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는 수도권 25개 대학, 비수도권 55개 대학 등 전국 80개 대학에 총 2320억원이 지원되며, 청양대학은 지난 2008년부터 6년 연속으로 선정돼 국비 총 99억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우리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비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해 올해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우수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인프라 구축 장학금지원 등 다양한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에 투자할 방침이다.

구본충 총장은 "이번 교육역량강화사업의 6년 연속 선정은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과 특화된 직업교육 경쟁력 및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대학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태영** 기자 (7wty@naver.com)

2013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결과

연번	충청권대학	지원금
1	대전보건대학	4,816
2	우송정보대학	3,868
3	충청대학	3,655
4	혜천대학	3,566
5	신성대학	3,485
6	대덕대학	3,343
7	대원대학	2,684
8	혜천대학	2,660
9	충북보건과학대학	2,575
10	**충남도립청양대학**	**2,180**
11	천안연암대학	1,789
12	아주자동차대학	1,635

연번	도립대학	지원금
1	**충남도립청양대학**	**2,180**
2	강원도립대학	1,638
3	경남도립남해대학	1,484
4	경남도립거창대학	1,385
5	경북도립대학	1,284

밀려오는 쓰나미에 생존하느냐, 도태되느냐 해법은 교명변경

❖ **양승일** [자치행정(학)과 교수, 본지 논설위원]

대표적인 공리주의(utilitarianism) 학자인 밀(J. S. Mill)은 "만족하는 돼지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는 말을 했다. 이는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위기를 인지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교육환경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인해 생존이냐, 도태냐의 이분법적 기로에 놓여 있다. 이에 맞춰 우리 충남도립청양대는 다양한 대안을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밀의 교훈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러 대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충남도립대학교'로의 교명변경이다.

고등교육법의 개정(2011.07.21)으로, 교명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전문대학은 학교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교명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3월 1일 현재 139개 전문대학 중 120개 대학, 86.3%가 교명변경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대학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같은 도립대학인 전남도립대학과 경북도립대학은 이미 전남도립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대학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고, 다른 도립대도 교명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대학은 교명이 '충남도립청양대학'으로 유지되고 있어, 정체성과 대학이미지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명을 "충남도립대학교"로 변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충남도립청양대학'은 충남도립대학과 청양대학이 혼재되어 있는 이중구조라는 점에서, 공식문서에 있어서도 청양대학, 청양도립대학, 도립청양대학, 충남도립대학 등으로 빈번하게 오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대학은 충청남도에서 충남 전체를 위해 만든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현 교명에 '청양'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해 협소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충청남도 전체를 대변하는 대학이미지를 희석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립대학 중 설립주체 다음에 대학이 위치한 기초단체를 포함하여 교명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가 있는데, 이는 도립대가 2개라는 점에서 대학을 구분하기 위해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대학마저도 통합추진을 통해 경남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나머지 공립대학인 충북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강원도립대학, 서울시립대학교 등도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이를 철저하게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교명을 '충남도립대학교'로 변경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학의 정체성을 높은 수준으로 확립시켜야 하고, 이는 충남 전체를 대변하는 도립대학의 이미지 향상에도 분명히 기여할 것이다.

대학이미지 향상은 궁극적으로 입시 등에 있어서 충원율 제고와 함께, 각종 산업체에 긍정적 호감을 갖게 하여 취업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충원율과 취업률 제고는 대학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대학이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대학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는데 입체적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협소한 지역을 지양하면서 교명을 변경한 충북지역 대학들은 신입생모집과 취업률에 있어서 상당한 향상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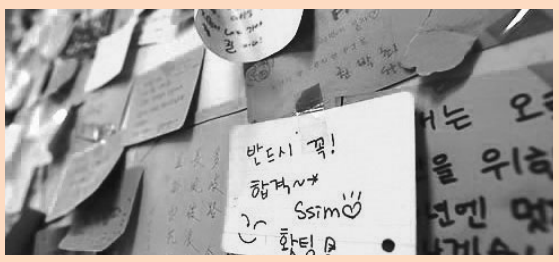
대학환경이 급속도로 변동하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 50여개의 대학이 지방대학 위주로 문을 닫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충남도립대학교(Chungnam State University)'로의 교명변경이 핵심적 해법이고, 이는 분명 대학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캠퍼스 흡연, 이제 그만!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등, 대부분의 시설물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학 캠퍼스만은 흡연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실정이다. 캠퍼스 곳곳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는 교내에 흡연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어도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와, 흡연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는 교정을 걸어 다니며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버젓이 금연포스터가 붙여진 공간에서 대놓고 흡연을 일삼는 학생들까지 눈에 띈다. 때문에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학생들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다. 국민건강진흥법에서는 대학의 금연 구역을 학교 시설물로 제한하고 있어, 건물 밖은 사실상 흡연 구역으로 풀려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비흡연자 학생들은 건강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흡연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흡연이냐, 금연이냐 하는 문제 역시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하지만, 흡연자라면 스스로가 담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주변이나 자신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다.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운 캠퍼스를 꿈꿔본다.

❖ **김연미** 기자 (gmrqorwls77@naver.com)

좌절하는 청춘, 청양대학 또 다른 돌파구!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 지원자 한해 평균 45만 명, 그야말로 공무원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황으로 취업난이 심해지고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고교생의 수보다 많은 인원이 매년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이처럼 공무원 시험 지원자가 많지만 실제 선발 인원은 9천667명에 불과, 평균경쟁률이 46.9대 1이나 됐다.

서울의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이모씨(24 · 여)는 올해 '5학년'을 다닌다. 졸업학점은 지난해 다 채웠지만 취업이 안돼 졸업을 한 학기 늦추기로 한 것이다. 겨울방학에도 매일 오전 학교 도서관으로 가 외국어와 기업체 인 · 적성 시험 준비를 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날의 연속이다.

강모씨(33)는 3년째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이다. 서울의 4년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05년 졸업한 그는 2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접었다. 남들처럼 취업이라도 해볼 생각에 몇몇 기업에 입사원서를 넣어봤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신 뒤 다시 공무원 시험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현재 한 구립도서관에서 시간제로 일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올해도 '공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가 목표로 하는 7 · 9급 공무원 시험은 매번 수백대 일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청년실업 100만'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치솟은 교육비와 실업률로부터 이중으로 압박받는 청년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우울한 세태는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말에 이어 '청년 실신(대학 졸업 후 실업자가 되거나 빌린 등록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집에서 취업 원서접수에 매진하고 있음을 표현한 '홈퍼니(홈 · Home과 컴퍼니 · Company의 결합)'와 취업이 대학생들의 목을 죈다는 '목찌'라는 말도 등장했다.

이처럼 '취업 난'이라는 말이 뼈로 느껴 질만큼 어려워졌다.

반면 우리 대학은 '공무원 특성화' 대학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공무원 준비에 있어 철저한 시스템을 보였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24시간 개방 심화학습실을 운영하고, 하계 동계 방학특강을 개최한다. 한 해 평균 40여명이 넘는 공직자를 배출하며 1998년 개교 이후 우리 대학은 459명의 공무원을 꾸준히 배출하면서 '공무원 특성화 대학'이라는 공무원 양성 학교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전국도립대 취업률 1위, 100만원밖에 안되는 효자 등록금과 폭넓은 장학금이라는 대학 네임에 걸맞게 학생 취업에 있어서도 상당한 관심과 쾌거를 이뤄냈다. 매년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 입사는 물론이거니와 공무원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까지 개인상담을 통해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각 과 교수는 학생 한명 한명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아낸다. 모두가 '서울', '서울' '4년제'를 외치는 고학력 사회에서 청양에 위치한 '충남도립청양대학' 이야말로 청춘들이 찾는 그리고 청춘들이 꿈꾸는 공무원 양성학교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청춘들의 선택만이 남았다. 용의 꼬리가 되겠는가, 뱀의 머리가 되겠는가!

❖ **윤석진** 기자 (seokjin9514@hanmail.net)

너희는 나에게 학생이 아니라 내 자식이야

작은공간 아주머니와의 소중한 시간

"어서 와~ 점심은 먹었니?"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우리에게 건넨 첫 말이었다.
나른한 어느 오후 '작은공간' 아주머니는 우리를 어머니와 같이 따듯하게 맞아 주셨다.
충남도립청양대학이 설립된 개교일부터 지금까지 쭉 학교 귀퉁이 굶주린 학생들의 휴식처가 되어 준 '작은공간'! 5년이 넘는 그 긴 세월동안 무던히도 그 세월을 지켜 오신 '작은공간' 사장님만의 유쾌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우태영 기자 (7wty@naver.com)

Q 가장 보람 있었을 때는 언제이세요?

A "어느 날 식당에 한 부부와 아이가 들어 온 적이 있어. 부부가 여기 청양대학생들 이였는데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서 여기까지 밥을 먹으러 온거야, 그때 가장 보람을 느꼈지"

Q 가끔 돈 없이 식당에 오는 학생들도 있나요?

A "차비 밖에 없는 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은 국밥이 먹고 싶었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먹고 갔어." 나중에 갚았냐는 말에 사장님은 말없이 "허허허허" 웃으셨다. 안 갚았나보다.

Q 어떤 학생이 가장 보기 좋으세요?

A 사람은 먹는 곳에서부터 복이 온다고 믿는 사장님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한 스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집에 들러 자야 했다. 근데 그 집이 너무 못 사는 거야, 밥은 먹는데 그 집 주인이 다리를 심하게 떨어.. 그걸 본 스님이 잠이 든 주인다리를 뚝 하고 잘라가 버렸어. 그 후 세월이 흘러 스님이 그 집을 다시 찾아가보니 으리으리한 집에서 주인이 살고 있는데 한 쪽 다리가 없어. 그 주인은 스님을 보고 뛸 듯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고 해"

Q 밥이 남으면 어떻게 하세요?

A "닭을 키워서 밥이 남으면 닭들에게 주곤 해, 왜? 내가 먹을까봐?"

Q 가격을 올리면 많이 남으실 텐데...?

A "가격이야 올리면 나야 좋기야 하겠지, 근데 학생들 부담이 너무 커져서 안 돼.. 또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 남아도 더 많이 팔아서 그 액수를 채우면 채웠지 올릴 수야 없지"

Q 다른 지역의 대학교 근처 식당은 사장님의 소개로 사귀기도 한다던데?

A "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봐, 부모님들이 기대하는데 공부를 안 하면 너무 서운해 할 것 같아 나는 이런 쪽으론 사람을 모으지는 않아. 나는 학생들이 공부해서 사회에 잘 나갔으면 좋겠어"

Q 학생들에게 서운해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A "나는 자식 같아서 밥이나 반찬도 더 챙겨주곤 하는데 군대 가는 애들 보면 작은 공간을 쳐다도 안 봐, 한번은 여자 친구 때문에 힘들어 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럼 군대 가서 다 잊고 새 출발하라고 챙겨 주었었는데 나중에 그 학생은 우리 식당을 쳐다보지도 않더라. 그땐 너무 서운 했어"

Q 다른 사업은?

A "나는 이거 하나로 충분해, 다른 사업이야 하게 되면 배달 사업을 하면서 학교로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다른 사업은 안 할래, 여기서 더 큰 욕심은 없어 만족해"

Q 가장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 "예전에 한 학생이 와서 그러는 거야, 군대에 있을 때 하사관이 가장 먹고 싶은 게 무엇이냐 물었었는데 그 학생이 작은 공간에서 팔던 순대국밥이 먹고 싶었다고 했단 거야. 아직도 내 손 맛을 그리워하는 애들이 있구나 싶었지"

Q 기억에 남는 손님은요?

A "전라북도 익산에서 온 손님도 받아봤어, 청양대학 학생이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는데 그걸 본 전북 인산 청년 둘이 찾아왔어. 청년 둘이 고추장 불고기를 보고 환호를 지르며 밥을 보고 감탄하는 거야"

Q 자제분이 대학에 갈 때가 된 것 같던데요?

A "우리 막둥이는 무조건 청양대엘 보낼 거야. 청양대가 얼마나 좋아. 다른 데 봐봐!! 자취방비며 등록금도 얼마나 비싸. 등골휘지... 난 지금도 고등학교 자녀 둔 엄마들 보면 청양대 보내라고 해 청양대 좋지 좋아."

Q 학생들 중에는 술을 많이 먹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A "술을 많이 먹은 학생들은 실수를 하게 될 것을 아니깐, 많이 먹은 학생들한테는 술을 안 팔아. 그래서 여태껏 15년 동안 사고 한 번 난 적이 없어"

Q 아주머니에게 작은 공간이란?

A "내 자식 같은 '작은공간' 은 예전에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렵게 만들었다"

학기 초에 4년제로 바꾸기 위해서 학교 앞 도로를 내야 한다는 말에 '작은공간' 사장님이 제일 먼저 땅을 내주었다고 한다. 그 길은 동네 주민들이 준 고마운 길이다. 하지만 도에서 추지해 길을 낸다고 해서 땅을 주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건 없었다고 한다. 무상으로 땅을 주신 작은 공간 사장님과 동네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할 따름이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A "머 말할게 있나?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유쾌하고 진솔했던 인터뷰를 끝마치면서 문득 '츤데레' 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언제나 겉은 퉁명스럽고 다소 거친 아주머니지만 속은 누구 못지않은 청양대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셨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끝마치며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아주머니의 따끔한 충고가 머리 속을 멤 돈다. 조금이라도 헤이해진 모습이 보이면 우리네 어머니들과 같이 핀잔을 주기 일쑤지만 이내 다시 수북한 밥사발로 그 인정을 보여주셨다. 겉은 차갑지만 속은 뜨끈한, 그런 국밥이 가득 담겨진 뚝배기처럼 아주머니는 어쩌면 그 뚝배기를 닮아 가는지도 모른다.

제15대 총학생회 '불꽃처럼'

❖ 윤석진 기자 (seokjin9514@hanmail.net)

지난 8월 2일 학보사에서는 우리학교 총학생회 활동의 미미한 점과 갈수록 피폐해지는 학생회 행사로 인해 학생회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회의 향후 활동에 관해 15대 이진우 총학생회장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다음 아래내용은 총학생회장 이진우 학생의 의견전문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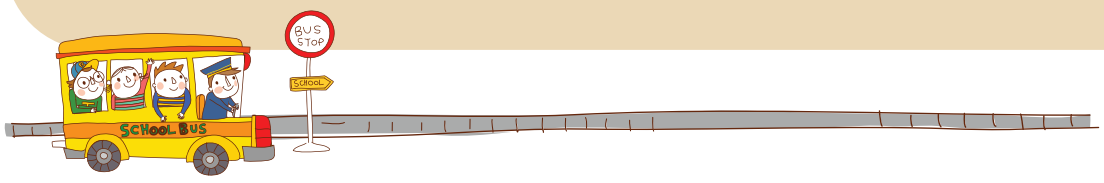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제 15대 총학생회장 이진우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도전하는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자 많은 여러 가지 실제적인 혜택과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지식 향상을 위해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고 많은 자료와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느 도서관 못지않은 시설로 학생들에게 편익을 주고, 보다 높은 활용도를 가질 수 있게 노력 중입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장학금 혜택과 공무원 특성화에 맞추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덕분에 많은 공무원을 배출하는 학교로 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한다면 바라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남을 대표하는 도립대학의 학생으로서 학교와 자신의 명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즐거운 대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총학생회의 존재감이 해가 더해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동안 총학생회의 총무부장으로 활동을 하고, 2013년도 한 학기동안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계획으로 시작했던 총학생회의 활동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총학생회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점 역시 뼈저리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15대 총학생회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편의와,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행사를 하기위해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행사라는 것이 학생회의 의견만으로는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대학은 공무원 양성에 집중하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동안 있었던 오리엔테이션이나 체육대회의 경우 총학생회에서 계획한 내용과 다르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행사 때마다 저희가 들었던 이야기는 도립대학이어서 다른 학교의 모범이 되어 한다,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너무 노는 분위기로 간다는 것이었고 그런 이유로 저희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면 모든 질타는 학생회에게 돌아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애초 계획한 행사 일정은 번번이 몇몇 학교 교직원 분들과 교수님들의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행사를 재밌고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찾아가 대안을 찾으려 노력을 했던 상황입니다.
학생회의 힘이 미비한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양대의 학생회는 행사를 대행하는 대행업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학교에서 정한 사항은 저희가 아무리 우기고 싸워봤자 바꿀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학교의 행사 지원은 점점 줄어만 가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는 2년제 도립대학인데, 학생들의 기대는 4년제 사립대학 이상의 축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건과 예산은 부족한데 학생들은 다른 학교 축제와 비교해서 부족하다, 미흡하다,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사를 원한다면 학생수와 또한 지원, 예산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지도 못하면서 질타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현실적인 여건과 문제를 학생들이 먼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학생회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학생회에 힘을 실어 주지도 않으면서, 학생들은 자기들의 권리만 찾고자 하고, 행사 후에는 질타하는 것만이 전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생회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해 학생은 즐겁고, 학생회는 욕을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학생회의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학교생활과 행사, 학생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 학생 여러분들이 학생회에 더욱 힘을 실어 주시고 또한 믿어주시고 같이 함께 나아가 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의 등하교를 책임지는

통학버스 기사를 인터뷰하다!

때로는 너무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만약 너무 익숙한 그 무엇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는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 바로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 버스도 이분들이 없으면 운행될 수 없다. 우리 학교에서 꼭 필요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두 기사분을 만나보았다.

❖ 박수진 기자 (fly_jeonbuk@nate.com)



기자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주사 제 이름은 최용복입니다. 학생들에게 잘 생긴 아저씨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제 생각에 저는 탤런트 최수종 씨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최수종이죠.

임주사 제 이름은 임규성입니다. 학생들은 김병만, 천사아저씨, 삼촌 등으로 절 부릅니다.(웃음) 저는 모든 학생들에게 재밌는 기사 아저씨가 되고 싶어요.

자기소개 후 최용복 주사는 운행을 위해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안타깝게도 더 이상 인터뷰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임규성 주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자 교내 통학버스를 운전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임주사 저는 교내 통학버스를 운전하기 전에 총장님은 3년 모셨어요. 그 후 청양대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벌써 4년이나 되었네요.

기자 통학버스를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 많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힘드실 때가 언제였나요?

임주사 사실 힘들었던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통학버스는 학교의 자산이자 도민의 자산이기도 한데 학생들이 가끔 껌을 붙이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통학버스는 현재의 학생들만 타는 차가 아니라 앞으로 새로 들어올 후배들, 그리고 지역 행사나 도민 행사가 있을 때 지원도 나가고 있거든요. 차량을 깔끔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생들만 사용하는 버스가 아닌데 깔끔하게 아끼면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나만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사용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자 그럼 반면에 가장 뿌듯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임주사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쓰레기를 자기가 직접 주워 가져가는 친구나, 힘내라고 캔 커피 등을 선물해주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뿌듯하고 고맙죠. 솔선수범해서 줄을 잘 서거나, 졸업생들이 가다가 저를 알아봐줄 때도 뿌듯합니다.

기자 앞으로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임주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니 기숙사에서 버스를 타기위해 좌우를 살피지 않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 난 학생이 있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좌우를 잘 살피고 차를 놓치면 다음차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다음 차가 없으면 조금 힘들겠지만 운동 삼아 걷는다는 생각으로 등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분 정도 먼저 일찍 나와 차를 기다려주었으면 해요. 이런 것들이 개선 더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등하교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임주사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 동안 불편한 사항도 많겠지만 것은 최대한 통학버스를 활용해서 탔으면 좋겠고, 우리 학교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졸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양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매번 학생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운행을 한다는 임규성 주사,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임성규 주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와 닿는 인터뷰였다. 학생들에게 늘 유쾌하고 즐겁게 웃기는 기사로 기억되고 싶다는 바램처럼, 모든 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에도 항상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June vision
준비展

2013년 6월 10일부터 인테리어·패션 디자인과 2학년 학생들의 졸업 작품전시회가 시작되었다. 졸업전시회는 2학년 재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운 학습 실력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이번 작품전시회는 졸업작품위원장, 기획부장, 편집부장, 홍부부장 등이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졸업 작품 전시회가 되도록 계획되어, 디자인과 학생들 모두의 작품과 함께, 밤을 새우며 작업을 하던 학생들 영상이 한쪽 벽면에 자리 잡았다. 졸업 작품전시회에 우리 대학의 구본충 총장과 각 부처장, 교수들이 방문해 축하해주었다. 졸업 작품전시회 주제 June vision (준비展) '6월의 꿈' 은 앞으로 인테리어·패션 디자인과 학생들이 꿈을 준비해 나아가는 큰 주제를 담았다. 전시장 내부는 인테리어와 패션 두 개 부분으로 나눠졌으며, 인테리어 부분과 패션부분을 잘 아우르며 전시장 내 관람객들의 동선을 무리 없이 유도하여 전시회를 관람하는데 불편함 없이 만들었다. 인테리어 작품들은 모형과 판넬로 전시 되었으며, 총 26의 모형이 전시되었다. 패션부분 작품들은 종이옷과 텍스타일 강의시간에 학생들이 만든 염색작품, 개인 제품 디자인 등이 전시되었다. 오프닝에서는 패션쇼를 진행하여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이번 졸업전은 인테리어 패션 디자인과 학생들에게 매우 뜻 깊은 행사였을 뿐만아니라, 전시회를 관람한 1학년들은 내년에 자신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행사였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 **이혜영** 기자 (sktkfkd04@naver.com)

뷰티코디네이션과 잇단 수상, 승승장구 !

뜨거웠던 밤,
'제14회 세계머드피부미용경진대회 및 머드&뷰티페스티벌'

24일 '제14회 세계머드 피부미용경진대회 및 머드&뷰티페스티벌' 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에서 국·내외 참가선수와 모델, 관람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머드 화장품을 이용한 피부미용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로 보령시가 주최하고 충남도립청양대학이 주관해 치러졌다. 1부 행사는 메이크업, 피부미용, 헤어디자인 등 부문별 미용경진대회가 진행됐고, 2부 행사에서는 머드&뷰티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볼거리 행사를 제공해 축제분위기를 연출됐다. 특히 이날 1부에서 개최된 피부미용경진대회에는 학생, 일반인 및 해외팀을 포함 총 128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메이크업, 피부미용, 헤어디자인, 네일디자인 부문에서 각자의 기량과 재능을 맘껏 뽐냈다. 우리 대학은 보령머드 축제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피부미용 분야의 우수 인재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구본충 총장은 "21세기는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특히 피부미용 분야는 오늘날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피부미용 전문영역의 세계화를 위한 대회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내실 있는 대회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머드 피부미용경진대회는 1999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전통적이고 권위있는 대회로 자리 잡고 있다.

❖ **윤석진** 기자 (seokjin9514@hanmail.net)

2014년도 자치행정과 야간과정

사회복지사 자격증취득 가능해진다

2014년도 자치행정과 야간과정(1,2학년) 신입생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졌다. 2년 4학기에 걸쳐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등 필수 10과목과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등 선택 4과목, 총 14과목 42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사회복지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구본충 총장은 "그동안 우리 대학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원하는 맞춤형 인력과 창의적이고 국제화를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우리 대학은 다양한 학습공동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재학생들의 공직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연미** 기자 (gmrqorwls77@naver.com)

♥ 청춘예찬 공모전 당선작

내가 받은 선물

❖ 건설정보과 2학년 **윤희택**

저는 2012년 5월 7일 전역 후 4개월 동안 집에서 일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9월이 되어 1학년 2학기에 복학해, 2013년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고 그동안 몇 가지 대학 에피소드가 생겨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복학할 때 다행히 친구들과 함께 복학해 그리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 제대 후 복학이라 확실히 21살 때 대학생활과는 완전 딴판 이었습니다. 예비역이라는 자존심과 책임감으로 무장하여 학교생활에 임하였습니다. 같은 1학년이지만 나이 많은 선배였던 저는 과에서 실행하였던 일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하면서도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기숙사에서는 설거지, 빨래, 청소 등등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하였습니다. 같은 방 친구들 모두 군 제대 후 복학이어서 모두 열심히 해 방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었고 대학생활도 함께 충실히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영어특강을 지원해주었는데 이수를 잘하면 과에서 3명까지 필리핀에서 1달간 어학연수를 보내준다고 해 신청 했습니다. 생후 처음으로 비행기도 타고 해외도 나가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1학년 학생들과 친해지고 영어실력도 늘어 1석 2조였습니다. 다행히 결과가 좋아 필리핀에 가는 학생으로 선발되어 상당히 기뻤습니다.

2013년 1월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세부행 비행기를 타고 4시간동안 날아가 CDU ESL이라는 어학원에서 기숙생활을 하면서 주중엔 공부하고 주말엔 나가서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다른 과 학생들과도 알게 되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체험활동도 즐겁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은 어디가나 똑같고, 사람 사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고 세상은 넓고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시야가 트인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1달은 어느새 빠르게 지나갔고 한국으로 귀국해 쉴 틈도 없이 바로 자격증 공부에 몰입했습니다. 이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외국에서 갓 돌아온 저는 약간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건방져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까지 생겼던 것 입니다. 친구들은 이런 내 모습을 보며 집단으로 비난 했습니다. "너 많이 변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잦아져 내가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반성한 후 산업기사자격증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잡아서 학교 다닐 때 보다 더더욱 열심히 하여 드디어 자격증 시험 날이 되었습니다. 시험시간 동안 내내 긴장하였지만 1달 동안 열심히 한 결과는 좋게 나와 주었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고 그 해방감에 3월 내내 매우 즐거웠습니다.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2학년이 되어 하루하루 신나있던 도중 3월말 학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점수가 나쁘지 않아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공무원이 되는 것이었는데 자격증 가산점이 커서 꼭 따기 위해 자격증 실기에 매달렸습니다. 교수님들과 조교님의 배려로 수업을 빼고 제도실에서 열심히 그렸습니다. 토목산업기사는 제도가 실기시험이었는데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친구들보다 1~2장씩 더 도면을 그렸습니다.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제도에 속도가 붙어 신속 정확히 그릴 수 있게 되어 4월 30일 실기시험장에서 1등이 되어 기분이 날아 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도를 하면서 동시에 남는 시간동안 공무원 국어 준비를 위해 문학을 공부할 때 시와 수필을 많이 읽었는데 이때 문학의 아름다움을 처음 알았습니다. 시와 수필을 읽고 학교 주변을 산책할 때 학교는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 등등 많은 꽃들이 피어 참 아름다웠습니다. 자연과 관련된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동시에 자연을 감상하는 것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꽃들을 보고 꽃이 지며 새싹과 신록의 잎이 돋아나는 아름다움을 보면서 당연한 자연의 순리지만 나에게 세상이 참 큰 선물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날씨는 따뜻해지고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고 나름대로의 사색도 해보면서 산책을 즐기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걱정이 되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내가 이 시간을 즐길 수 있을까? 사회에 나가면 세상일에 치이고 삶에 바빠져 마지막 학창시절 느끼고 보았던 이 아름다운 봄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을 갖자고 다짐하며 많은 생각을 하며 캠퍼스의 봄을 보냈습니다.

봄은 지나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다가오고 남은 시간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하면서 주말 일요일인 오늘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문학 작품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 문학작품 많이 읽으세요. 저는 문학작품 중에서도 자기반성적인 글을 많이 읽는데 주로 느낀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살아 있을 때만큼은 완전 연소될 수 있는 삶.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 나중에 뒤돌아보아도 열심히 살았다는 마음이 들게, 적게 후회하도록 나의 젊음이 부끄럽지 않을,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시간. 아름다운 선물. 소중한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사랑하기.'

저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이 선물 잘 활용하자, 라고.....

기자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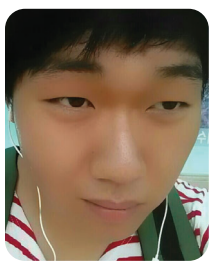
윤석진 기자

이번 신문을 펼치며 지난 날 동안 같이 고생해왔던 신문사 박창원 사장과 신문사 기자 한명 한명에게 깊은 노고와 감사함을 전한다. 기사란 걸 읽을 줄로만 알았지 쓸 줄은 몰랐던 우리들이 직접 발로 뛰며 고군 분투 움직이며 만들어낸 첫 작품이다. 이제 편집이 끝났고 신문이 출판이 되면 긴 공백이 생기겠지만, 저희 신문사는 계속해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이혜영 기자

작년 한 해 동안 신문부 활동에 이어 이번 2학년 1학기도 활동을 하였다. 기존의 우리 신문부 친구들이 아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이번 학기를 잘할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을 가지며 작업을 했다. 새로운 친구들과 적응하며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이번학기는 신문부 일을 하면서 가장 아이디어 회의도 원활했으며 좋은 기사를 많이 쓸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 될 수 있어서 안타깝지만 앞으로 우리 친구들과 신문부에 들어올 새로운 친구들이 잘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항상 응원할 것이다. 신문부를 통해 배운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이번 학기도 좋은 신문 내느라 고생한 신문부 가족들이 너무 고맙다.

우태영 기자



이번 기자를 하며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많았다. 이 기회를 만들어준 우리 신문사 기자 한명 한명에게 고맙고 우리가 서로 고군분투하며 신문을 만들어 나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했던 순간들이 내겐 너무 감사했다. 신문사라는 대학 신문사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알지도 접하지도 못한 무수한 정보력을 접하고 나니 새삼 우리대학에 있어서도 애정이 더욱 더 많아졌던 순간이었다.

송득원 기자

처음 신문사 신문을 쓰면서 정말 많은걸 느낄 수 있었다. 신문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한 신문사 임원들과 신문사 사장께 감사의 말을 하고 싶다. 글을 쓰는 게 처음이라 서툴고 미숙하지만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기사를 완성 할 수 있었다. 이번 신문사 활동을 통해 학교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내가 몰랐던 많은 점들을 알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2학기가 다가오는 2013학년에는 조금 더 발전하여 더 좋은 기사를 쓰고 싶다.

박수진 기자

신문사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고민이 많이 되었다. 하지만 편집장인 석진오빠와 다른 언니 오빠들이 많이 도와주고 격려해 준 덕에 이렇게 기사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취재를 갈 때마다 진짜 기자가 된 기분이 들었고, 학교를 대표하는 기자로써 좀 더 알찬 기사를 선보이고 싶었다. 기대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시절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 다음에는 더 좋은 기사를 쓰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다.

김연미 기자

제가 기자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보람이라고 할 수 있었다. 기자활동을 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체육대회 때이다. 체육대회를 즐기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더 많은 사진을 찍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긴 했지만 카메라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모두들 즐겨서 좋았다. 그 외에도 즐거운 일과 보람이 많았다.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주저 없이 최선을 다해 할 것이다.

2013년 2학기 수습기자 모집

우리대학 신문사에서 2013년 2학기 수습기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
- ▶ 사진 찍는 걸 좋아하거나 취미다 싶으신 분!
- ▶ 대학 캠퍼스를 누비며 기자도 정신을 발휘하고 싶은 신 분!
- ▶ 젊음의 패기! 열정이 가득하신 분!
- ▶ 화려한 인맥, 마당발이 되고 싶다는 분!
- ▶ 특별한 대학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
- ▶ 나만의 색다른 스펙을 만들고자 하는 분!
- ▶ 거기에 든든한 장학금까지 받고 싶다는 분!

들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신문사에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 | **2013. 9. 1 ~ 10. 1**

문 의 처 | **010-8603-9514** (seokjin9514@hanmail.net)

전통문화와의 소통, 인사동에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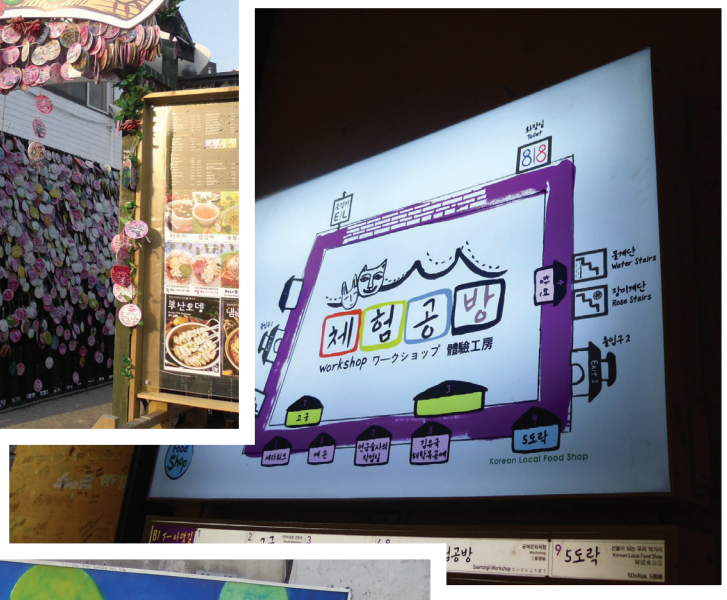
문득 혼자서 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적지는 서울로 정하고 여행 코스를 짜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는 '인사동쌈지길' 이었다. 쌈지길은 공예와 디자인소품을 만날 수 있는 공예전문 쇼핑몰로 계단을 오를 필요 없이 1층부터 4층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당일 여행코스였던 경복궁 투어를 마치고 인사동으로 걸어갔다. (인사동은 경복궁에서 걸어서 10분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인사동 길에 들어서 가장먼저 발견했던 신기한 점은 바로 간판들이 모두 다 한글이라는 것이었다. 스타벅스, 더페이스샵 등 우리에게는 영어로 더 익숙해져 있는 간판들이 모두 한글로 적혀 걸려있었고, 골동품판매, 전통기념품 판매 등 우리나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여행지인 것 같았다. 인사동을 어느 정도 둘러본 후 쌈지길에 들어섰다.

쌈지 길을 들어서자마자 나는 깜짝 놀랐다. 사진으로만 봐오던 쌈지길이 눈앞에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다. 말로만 듣던 계단 없이도 올라갈 수 있는 건물과 여러 상점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혼자서 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지만 굴하지 않고 관람을 하기 시작했다!

둘러보는 내내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할지 몰랐다. 관광객 모드로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혼자여서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었다. 항상 그래왔듯 지나가는 분을 붙잡아 사진도 찍었다. 사진 속 내가서있는 곳은 2층이었다. 사실 2층이라기 보다는 2층과 3층을 연결해주는 부분이기에 2.5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상점들을 찍고는 싶었지만 거의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기에 사진촬영이 금지되어있는 곳이 많았다. 아직도 상점사진들과 여러 가지 액세서리 등 사진이 없는 게 아쉽기만 하다.

걸어서 올라오다보니 옥상에 있는 '사랑의 담장' 이 보였다. 남산타워는 자물쇠를 많이 걸어두지만 여기는 자물쇠대신 타월 같은 것을 판매하여 걸을 수 있게 해뒀다. 처음에 여행계획을 세울 때까지만 해도 왜 이곳에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직접 와보니 눈도 즐겁고 이렇게 추억까지 남길 수 있기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옥상도 구경했으니 내려가려던 때 계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계단 없이 오르는 재미로 올라왔던 건물을 계단으로 내려가니 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내려 가다보니 층을 소개하는 간판 같은 것들이 있었다. 참 한국적이었던 것 같다. 계단으로 내려가면 지하도 갈 수 있다. 지하에는 여러 가지 체험과 공예작품들을 만들어볼 수 있었다.

❖ 박수진 기자 (fly_jeonbuk@nate.com)